

## 수정된 IPA를 이용한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방안 탐색

# Using the Revised IPA to Explore the Operation Plan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Universities

안수현, 이상준\*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Su-Hyun Ahn, Sang-Jun Lee\*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Semyung University, Jecheon, Chungbuk 27136, Korea

### [ 요약 ]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Kano의 3요인 이론에 기반한 수정된 IPA를 적용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탐색하였다. 이에 비교과가 활성화된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이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과 “학생이 주도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속성별로 구분하고, 학생들이 참여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성과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대학이 운영하는 외국어 비교과 프로그램은 기본적이고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꼭 필요한 속성이고, 학생이 주도하는 예체능, 봉사 비교과 프로그램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충족 시 감동을 유발하는 매력적인 속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살펴 대학 비교과의 정책적 방향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 Abstract ]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university extra-curricular activities, identifying the needs of actual users, the students, are essential. This research implemented the revised IPA based on Kano's Three-Factor Theory to explore efficient operation plan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For this purpose, universities actively operat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were chosen, “extra-curricular activities operated by school”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lead by student” were categorized. The importance and result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students participated in were investigated. The analysis revealed the language extra-curricular activities operated by school were considered fundamental, essential, and necessary. Art, physical education, and volunteer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lead by the students found out to be unexpectedly attractive and heartwarming.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help determine the policy direction of university extra-curricular activities by defining the needs of students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looking into what extra-curricular activities students find attractive.

**Key Words:** Extra-Curricular,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Kano Model, Revised IPA, Three-Factor Theory

<http://dx.doi.org/10.14702/JPEE.2021.029>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6 February 2021; **Revised** 18 March 2021

**Accepted** 23 March 2021

**\*Corresponding Author**

E-mail: leesangjun@semyung.ac.kr

## I. 서론

최근 보편화 단계에 이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재정지원 사업이 시행되었고, 이러한 정책 사업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비교과 교육과정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1]. 대부분의 대학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비교과 교육에 해당하는 각종 특강, 학생 커뮤니티 및 모둠활동, 교내외 봉사활동, 취창업 컨설팅, 외국어, 독서 프로그램, 각종 대외활동 등을 대학 특성에 맞게 지원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과 활동들은 학생들의 대인관계 향상[2], 학업 성취도 증가[3], 대학생활 만족도 상승[4], 학업 초기 중도 탈락률 감소[5], 취업역량 강화[6] 등 다양한 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성과들이 발표되고 있다[7]. 다시 말해 학생들은 무의미하게 보내던 시간을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이 향상되고, 성적향상,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수업 출석률이 높아져 초기 중도 탈락률이 현저하게 감소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경험하며 리더십, 팀 활동능력, 조직력, 문제해결능력, 시간관리능력 등이 향상되고, 재능과 잠재력을 발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8].

비교과 교육과정은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과는 달리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요구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비교과 활동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9]. 그러나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교과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담당주체가 대학본부 및 부설기관, 단과대학 및 학(부)과, 각종 사업단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10]. 대학은 비교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구하는 인재상에 따라 비교과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을 제공하고 있지만 교육을 받는 주체인 학생들이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비교과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비교과 교육의 체계적 수립과 학생들의 핵심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비교과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파악 점검해야 한다[11].

실제 비교과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성과,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통한 발전방향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있다[12-14]. 조사 내용도 단순한 비교과 교육에 대한 인식부터 주관 부서의 주요 프로그램 내용 및 선택속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5]. 그러나 이러한 연구성과는 비교과 선택속성의 중요도를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과 교육의 운영 방향성을 위해 어떤 속성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 또한 불만족이 낮아진다고 해서 만족이 높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족과 불만족을 연속적인 개념으로 간주하여 학생이 평가한 점수가 높으면 만족도가 높고 불만족 정도는 낮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만족과 불만족이 연속차원의 개념인가 아니면 불연속 차원의 개념인가의 문제는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에 대한 심층적 논의없이 연속적 개념에 의거하여 측정하고 있다[16]. 이에 본 연구는 전통적인 IPA와 Kano의 3요인 이론에 기반한 수정된 IPA를 실증적으로 적용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의 속성을 기본요인, 실행요인, 매력요인으로 분류한 후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교과 교육은 국책사업에 의한 일시적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비교과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탐색하고 대학 비교과의 정책적 방향 결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A. 전통적인 IPA

1977년 Journal of Marketing에 발표된 전통적인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는 제품 및 서비스가 지니고 있는 속성들에 대해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매트릭스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통제할 수 있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중요도와 성과를 평가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영역을 결정할 수 있어 전략적인 관점에서 간단명료하고 효과적인 기법으로 활용된다[17]. 표 1과 같이 중요도와 성과에 따라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1사분면은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높게 평가된 영역으로 성과가 낮아지지 않도록 현재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제2사분면은 중요도 대비 성과가 낮은 영역으로 가장 먼저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다. 제3사분면은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낮은 영역으로 현재 이상의 노력이 불필요하여 개선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고, 제4사분면은 중요도는 낮지만 성과가 높은 영역으로 투입된 노력을 다른 평가영역에 투입하거나 현상유지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와 같이 IPA는 매트릭스의 각 영역을 통해 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성에 대한 직관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한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표 1. 중요도-성과 분석

Table 1.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 Importance ↓	II. "Concentrate Here" Low Performance High Importance	I. "Keep Up the Good Work" High Performance High Importance
	III. "Low Priority" Low Performance Low Importance	IV. "Possible Overkill" High Performance Low Importance
	← Performance →	

B. Kano model에 기반한 수정된 IPA

한편 전통적인 IPA는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속성별 성과와 전반적인 만족도의 선형적, 대칭적 관계를 위배하는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18-21]. 이에 수정된 모델이 중요 연구대상으로 부각되면서 Kano의 3요인 이론(three factor theory)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는데, Kano는 기본요인(basic factors), 실행요인(performance factors), 매력요인(excitement factors)의 3개 범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속성을 분류하고 이들이 전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2]. 기본요인은 충족되지 못할 경우 불만족의 원인이 되지만 충족되었다고 해서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예: 자동차의 에어컨)을 의미한다. 실행요인은 충족되면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을 유발하는 요인(예: 자동차의 열선시트)에 해당한다. 매력요인은 충족될 경우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만 충족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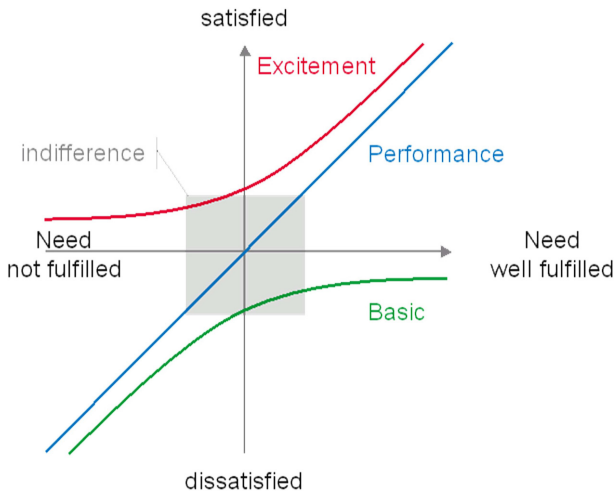


그림 1. 카노 모델  
Fig. 1. Kano model.

았다고 해서 불만족을 유발하지 않은 요인(예: 자동차의 줄임방지 기능)을 의미한다[23]. 이 세가지 요인들은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비선형성이 있게 된다. 다시 말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요인과 매력요인은 전반적 만족과 비대칭 및 비선형 관계를 갖는 반면 실행요인은 전반적 만족과 대칭적이며 선형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형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각각 독립적이며, 선형적, 대칭적 관계라는 IPA의 오류문제를 해결하였지만, 변수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복잡한 통계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존 IPA의 간단명료한 분석로직을 어렵게 만들었다[24].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Vavra(1997)는 Kano의 이론과 IPA를 결합하는 수정된 IPA를 제시하였다[25]. 그는 절대적 중요도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직접 측정된 명시적 중요도(explicit importance)보다 통계적으로 도출한 내재적 중요도(implicit importance)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고, Kano 이론의 복잡한 통계과정을 보완하고자 중요도 산출 과정에 회귀계수를 적용하였다. 통계적으로 도출한 중요도는 응답자의 직접 평가로 획득한 절대적 중요도보다 예측 타당도가 높으며, 여러 속성 중 전체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교 우위에 있는 요인을 전략적으로 선정할 수 있어 보다 설득력 있는 방법이다[26]. 이를 통해 다음 표 2와 같은 매트릭스를 구성할 수 있다. 제1사분면은 명시적 중요도와 내재적 중요도가 모두 높은 만족 실행요인으로 충족되면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제2사분면은 명시적 중요도는 낮지만 내재적 중요도는 높은 매력요인으로 충족되지 못하면 불만을 주지 않지만, 충족되면 크게 만족을 주게 된다. 제3사분면은 명시적 중요도와 내재적 중요도가 모두 낮은 불만족 실행요인으로 충족되지 못하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제4사분면은 명시적 중요도는 높지만 내재적 중요도는 낮은 기본요인으로 당연시되는 요구사항으로서 충족하면 만족이 높아지지 않지만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을 초래하게 된다[25]. 따라서 수정된 IPA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한다면

표 2. 수정된 IPA

Table 2. Vavra's revised IPA

↑ Implicit Importance ↓	II. "Excitement Factors" Low Explicit Importance / High Implicit Importance	I. "Key Performance Factors" High Explicit Importance / High Implicit Importance
	III. "Unimportant Performance Factors" Low Explicit Importance / Low Implicit Importance	IV. "Basic Factors" High Explicit Importance / Low Implicit Importance
	← Explicit Importance →	

고객만족과 아울러 고객감동의 요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 III. 연구설계

#### A. 설문지 구성

일반적으로 대학 비교과 교육은 크게 인성 및 소양, 학업 지원, 진로지도, 사회봉사 등의 목표 범주로 나눌 수 있지만, 각 대학은 추구하는 인재상을 명시적 목표로 규명하고 개별 대학 특성에 맞는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27]. 본 연구는 비교과가 활성화된 대학을 표본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표본으로 선정한 충북 소재 S 대학교는 비교과 교육을 운영 주체에 따라 1) 대학이 운영하는 비교과, 2) 학생이 주도하는 비교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여기서 대학이 운영하는 비교과는 행정부서 및 단과대학에서 운영하는 비교과를, 학생이 주도하는 비교과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조직하여 다양한 분야의 커뮤니티(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교과를 의미한다. 또한 핵심역량에 맞게 비교과의 속성을 1) 융복합적 교육을 위한 학습, 2)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봉사, 3) 현장실무 적응을 위한 취창업, 4) 책과의 만남을 통한 독서, 5) 세계화 시대 적응을 위한 외국어, 6) 문화 예술 체육의 상호작용을 위한 예체능으로 구분하여 통합관리하고 있었다.

최종 설문지는 학교 중심 비교과와 학생 중심 비교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적절한 프로그램 예시를 제시한 후, 대학이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학습, 봉사, 취창업, 독서, 외국어)과 학생이 주도하는 비교과 프로그램(학습, 봉사, 취창업, 독서, 예체능)에 대한 각각의 중요도 및 성과를 평가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프로그램 속성들의 평가가 실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수정된 IPA 수행 시 필요한 내재적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한 전반적 만족도 1문항을 추가하였고, 비교과에 대한 인식 및 인구통계학적 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 B.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조사는 2019년 11월 표본 선정 대학의 주요 행사인 비교과 커뮤니티 최종 발표회에 참여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응답자는 지난 1년 이내 대학이 운영하는 비교과와

학생이 주도하는 비교과 모두 참여한 학생으로 한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본격적인 설문에 앞서 비교과 참여경험 여부로 응답자를 스크리닝 하였다. 또한 설문응답의 독려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설문 종료 후에는 응답자들에게 대학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를 제공하였다. 조사에는 총 386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나, 이 중 불성실한 응답 및 일관성 있는 응답을 제외한 총 32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Excel,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빈도 분석, 중요도-성과 차이분석을 위한 대응표본 t-test, 동일방법편의 검증, 내재적 중요도 산출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수정된 IPA를 실시하였다. 수정된 IPA는 Vavra(1997)의 절차에 따라 명시적 중요도를 x축으로 설정하고, 전반적 만족과 각 속성의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통해 도출된 내재적 중요도를 y축으로 설정하여 매트릭스를 작성하였다. 이 때 중요도와 성과는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실제보다 과장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여부를 Harman's one-factor test를 통해 검증하였고[28], 수정된 IPA의 회귀분석 과정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지적한 Deng(2007)의 권고를 받아들여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확인하여 연구의 정밀성을 높였다[29].

### IV. 연구결과

#### A. 응답자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122명(37.7%), 여성 202명(62.3%), 학년은 1학년 85명(26.2%), 2학년 74명(22.8%), 3학년 95명(29.3%), 4학년 70명(21.6%), 소속 단과대학은 인문예술대학 35명(10.8%), 사회과학대학 121명(37.3%), IT엔지니어링대학 62명(19.1%), 보건바이오대학 104명(32.1%), 한의과대학 2명(0.6%)으로 비교적 고르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격증 취득(21.1%)인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시 주어지는 혜택(17.5%), 진로탐색에 도움(15.1%), 단순 호기심(14.8%), 프로그램 내용(13.9%), 취업에 도움(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생들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45.3%)로 나타났고, 관심이 없어서(40.6%),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3.1%),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2.8%), 참여시 주어지는 혜택이 적어서(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램 운영시기는 수요일 오후(39.2%)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화요일 오후(15.1%), 목요일 오후(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B. 수정된 IPA

대학이 운영하는 비교과와 학생이 주도하는 비교과의 중요도-성파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요도는 대학운영 취창업(4.189), 대학운영 학습(4.186), 대학운영 봉사(4.133), 대학운영 외국어(4.099), 학생주도 취창업(4.059)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성파는 대학운영 학습(3.505), 대학운영 봉사(3.457), 학생주도 학습(3.455), 대학운영 취창업(3.414), 대학운영 외국어(3.06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학이 운영하는 학습, 봉사, 취창업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성파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도-성파의 차이검증 결과 모든 항목에서 중요도에 비해 성파가 낮게 나타났고, 그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주도 취창업(1.047), 대학운영 외국어(1.031), 학생주도 독서(0.994), 학생주도 봉사(0.929), 대학운영 독서(0.811) 순으로 중요도와 성파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속성에 대한 명시적 중요도 평균 3.996과 내재적 중요도 평균 3.162를 각각 교차한 수정된 IPA 매트릭스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참고로 동일방법편의 검증 결과 단일 요인이 전체 분산의 32.735%를 차지해 일반적인 기준인 50% 미만을 충족시켜 동일방법편의는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중공선성은 분산팽창요인(VIF) 값이 1.304~2.02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분석과정에서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였다. 분석결과 실행요인(제1사분면)은 학생이 주도하는 학습, 취창업 비교과 프로그램과 대학이 운영하는 학습, 취창업, 봉사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충족수준이 높을수록 만족수준이 높아지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매력 요인(제2사분면)은 학생이 주도하는 예체능, 봉사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충족 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실행요인(제3사분면)은 학생주도 독서 비교과 프로그램과 대학운영 독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중요도가 낮은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기본요인(제4사분면)은 대학운영 외국어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꼭 필요한 요소라고 인식하는 속성이다.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와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살펴 대학 비교과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비교과 교육과정을 대학이 운영하는 비교과(학습, 봉사, 취창업, 독서, 외국어) 프로그램과 학생이 주도하는 비교과(학습, 봉사, 취창업, 독서, 예체능) 프로그램으로 분류하고, Kano 이론에 기반한 수정된 IPA를 이용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느끼는 속성들을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중요

표 3. 수정된 IPA 결과

Table 3. The results of revised IPA matrix

Category	Program	Importance		Performance		Paired differences	t	Implicit Importance	
		Mean	Rank	Mean	Rank			$\beta$	Rank
대학운영 비교과	학습	4.186	2	3.505	1	0.681	12.570***	0.195	1
	봉사	4.133	3	3.457	2	0.676	12.089***	0.147	3
	취창업	4.189	1	3.414	4	0.775	12.706***	0.123	4
	독서	3.824	8	3.012	7	0.811	12.563***	0.056	8
	외국어	4.099	4	3.068	5	1.031	15.025***	-0.058	9
학생주도 비교과	학습	4.056	6	3.455	3	0.601	9.605***	0.087	7
	봉사	3.904	7	2.975	9	0.929	12.817***	0.108	6
	취창업	4.059	5	3.012	6	1.047	14.254***	0.120	5
	독서	3.702	10	2.708	10	0.994	13.532***	-0.096	10
	예체능	3.814	9	3.009	8	0.804	11.456***	0.157	2

\* P<0.01, \*\* p<0.05,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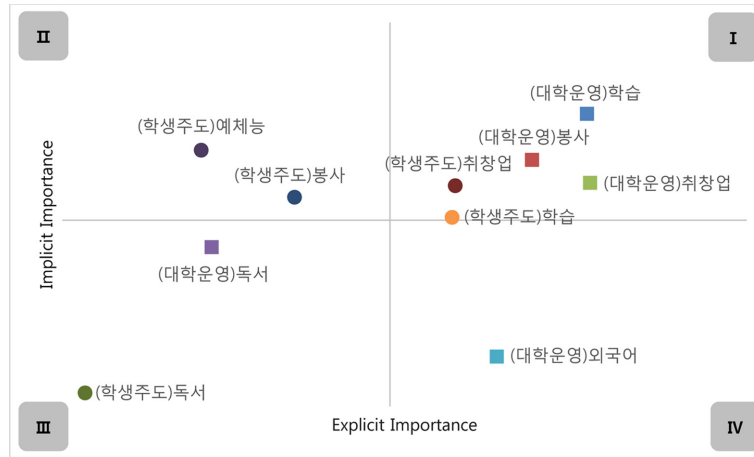


그림 2. 수정된 IPA 결과

Fig. 2. The results of revised IPA matrix.

하게 생각하고 전반적인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실행요인에는 학생이 주도하는 학습, 취창업 비교과 프로그램과 대학이 운영하는 학습, 취창업, 봉사 비교과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둘째,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매력요인에는 학생이 주도하는 예체능, 봉사 비교과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셋째, 학생들이 지각하는 중요도 수준이 낮고 전반적인 만족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낮은 비중요 실행요인에는 학생이 주도하는 독서 비교과 프로그램과 대학이 운영하는 독서 비교과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넷째, 학생들이 지각하는 중요도 수준은 높지만 전반적인 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이 낮은 기본요인에는 대학이 운영하는 외국어 비교과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별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의 높고 낮음을 파악하는 것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비교과 속성별 역할을 이해하고 인식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개선 노력해야 한다.

대부분 대학은 비교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비교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해 집중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도 탈락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해결책으로 학교적응 향상에 효과적인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30]. 이를 위해 비교과의 매력적인 요인을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어필하여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부각시켜야 한다. 연구결과 학생

스스로 주도하는 예체능과 봉사 비교과 프로그램의 매력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포츠 동아리 프로그램 참여가 학교적응과 심리적 문제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31], 자원봉사 경험을 통하여 처음에는 새로운 상황과 낯선 사람과의 만남으로 어려움을 겪으나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32], 학생이 주도하는 비교과 활동은 대학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예체능과 봉사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준다면,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충성도가 높아지고 핵심역량개발의 촉진제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비교과가 활성화된 대학이라 하지만 연구자가 소속된 한 대학의 사례만을 다루어 모든 대학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비교과 영역의 속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평가기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특성이나 인재상에 따라 개념과 범위를 재정의할 수 있고 질적연구와 병행하여 운영 방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수정된 IPA의 속성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매력요인이 되었던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점차 중요 실행요인으로 변하고, 이후 필수적 니즈인 기본요인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중단적 자료를 수집하고 과거 및 현재시기를 비교 검토하여 연구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1] K. H. Kim, "Effects of financial supports for universities: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ACE) fund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
- [2] S. L. Rynes, C. Q. Trank, A. M. Lawson, and R. Ilies, "Behavioral coursework in business education: Growing evidence of a legitimacy crisis,"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vol. 2, no. 3, pp. 269-283, September 2003.
- [3] R. A. Bakoban and S. A. Aljarallah,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their effect on the student's grade point average: statistical study," *Educational Research and Reviews*, vol. 10, no. 20, pp. 2737-2744, October 2015.
- [4] K. L. Godbey and M. M. Courage, "Stress-management program: intervention in nursing student performance anxiety,"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vol. 8, no. 3, pp. 190-199, June 1994.
- [5] A. M. White and C. T. Gager, "Idle hands and empty pockets? youth involvement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social capital, and economic status," *Youth & Society*, vol. 39, no. 1, pp. 75-111, September 2007.
- [6] G. Clark, R. Marsden, J. D. Whyatt, L. Thompson, and M. Walker, "'It's everything else you do...': Alumni views on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employability," *Active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vol. 16, no. 2, pp. 133-147, July 2015.
- [7] E. Massoni, "Positive effects of extra curricular activities on students," *ESSAI*, vol. 9, no. 1, pp. 84-87, 2011.
- [8] S. H. Hwang, "Extracurricular activity participation and its effect on the students' grade point average - with reference to gender, major, grade variables and activity type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3, no. 4, pp. 11-37, 2019.
- [9] S. H. Ahn and S. J. Lee, "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on the experience of university mileage scheme," *Journal of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vol. 12, no. 2, pp. 371-381, December 2020.
- [10] K. W. Yang,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university extracurricular education management and accreditation system: U-CAAM,"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24, no. 3, pp. 115-131, September 2015.
- [11] S. Y. Kim and M. K. Lee, "A study on students' perceptions and needs about college extracurricular program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9, pp. 585-609, September 2016.
- [12] A. N. Han, "The operation and performance on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D university," *Korea University Institute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0, no. 4, pp. 111-138, November 2017.
- [13] H. S. Shin, "Analysis of students' perception on extracurricular program of L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1, no. 6, pp. 303-332, December 2017.
- [14] E. G. Lim, B. K. Kim, S. Y. Kim, and H. J. Lim,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n the creativity and convergence extra-curricular program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3, no. 2, pp. 287-312, April 2019.
- [15] E. Y. Kim, "A study on the extracurricular activity of women's university - student perceptions and directions for development focusing on C women's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3, no. 4, pp. 39-70, August 2019.
- [16] K. H. Lee and W. K. Hong, "The measurement and use of customer satisfac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focused on the discontinuous approach of satisfacti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39, no. 4, pp. 105-124, 2005.
- [17] J. A. Martilla and J. C. James,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vol. 41, no. 1, pp. 77-79, January 1977.
- [18] H. Oh, "Revisiting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Tourism Management*, vol. 22, no. 6, pp. 617-627, December 2001.
- [19] K. Matzler and E. Sauerwein, "The factor structure of customer satisfaction: An empirical test of the importance grid and the penalty-reward-contras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Service Industry Management*, vol. 13, no. 4, pp. 314-332, October 2002.
- [20] K. Matzler, E. Sauerwein, and K. Heischmidt,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revisited: the role of the factor structure of customer satisfaction," *The Service Industries Journal*, vol. 23, no. 2, pp. 112-129, March 2003.
- [21] K. Matzler, F. Bailom, H. H. Hinterhuber, B. Renzl, and J. Pichler, "The asymmetric relationship between attribute-

- level performance and overall customer satisfaction: a reconsideration of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vol. 33, no. 4, pp. 271-277, May 2004.
- [22] N. Kano, N. Seraku, F. Takahashi, and S. Tsuji, “Attractive quality and must-be quality,” *Journal of the Japanese Society for Quality Control*, vol. 14, no. 2, pp. 147-156, 1984.
- [23] C. Jeong and Y. S. Seo, “Re-examination of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used in tourism studies in Korea,” *The Journal of Tourism Studies*, vol. 22, no. 1, pp. 119-137, June 2010.
- [24] S. S. Pyo, “Importance and asymmetry in tourism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Kyonggi Tourism Research*, vol. 12, no. 2, pp. 1-14, December 2008.
- [25] T. G. Vavra, *Improving your Measurement of Customer Satisfaction: A Guide to Creating, Conducting, Analyzing, and Reporting Customer Satisfaction Measurement Programs*, Quality Press, 1997.
- [26] J. L. Crompton and N. A. Duray,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ve efficacy of four alternative approaches to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 13, no. 4, pp. 69-80, September 1985.
- [27] S. P. Jang and J. I. Kim, “Exploring causes of the convergence thinking skill by extracurricular activities : focusing on liberal arts knowledge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13, no. 4, pp. 135-156, 2015.
- [28] P. M. Podsakoff, S. B. MacKenzie, J. Y. Lee, and N. P. Podsakoff,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88, no. 5, pp. 879-903, 2003.
- [29] W. Deng, “Using a revise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approach: the case of Taiwanese hot springs tourism,” *Tourism Management*, vol. 28, no. 5, pp. 1274-1284, October 2007.
- [30] G. D. Kuh, “The other curriculum: out-of-class experiences associated with student learning and personal development,”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 66, no. 2, pp. 123-155, March 1995.
- [31] J. U. Min and Y. J. Lee, “Effect of sports club program on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and resilience in local university student,” *The Korea Journal of Sport*, vol. 16, no. 1, pp. 139-146, March 2018.
- [32] K. E. Bae, J. S. Park, and Y. O. Yang, “Experiences of volunteer group activ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1, pp. 7262-7272, November 2015.





**안수현 (Su-Hyun Ahn)\_정회원**

2016년 8월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졸업(교육학박사)  
2017년 5월 ~ 현재 :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관심분야> 교육측정, 교육평가, 미래융합교육



**이상준 (Sang-Jun Lee)\_정회원**

2010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2013년 3월 ~ 현재 :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관심분야> 데이터과학, 마케팅, 전산통계